

자율주행차 교통 인프라 구축 속도 낸다

광주시·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운전능력 평가센터·시험 시설 자율주행차 종합시설 구축 나서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으로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 확대에 나선다.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차세대 교통 수단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첨단 교

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2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정준하 교통과학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과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적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지향적 교통 인프라 구축, 차세대 교통안전 융합체계 구현, 교통안전 문화 및 공간 대 확산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상호 유기적

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주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센터, 실 도로기반 시험환경, 가상 시험환경, 운전능력 평가 지원시설 등 자율주행차의 전 과정을 인증·평가하는 종합시설을 구축한다. 또 도로교통공단 산하·관련 기관인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시설 확보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번 업무협약과 최근 유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 등을 연계해 친환경

자동차부터 자율주행 스마트 자동차까지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AI 기반 과학기술창업 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수소융합 에너지실증센터 준공 등 미래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으로 자율주행차 인증·평가시설을 통해 광주가 미래자동차산업 메카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권 소재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풍류남도 나들이' 공연. 이 행사는 북구·광주사립양군이 공동 주최로 매년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북구,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 추진

생태탐방원과 업무 협약 생태자원 활용 프로그램 발굴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 생태탐방원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무등산의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5일 무등산 생태탐방원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교류 협약은 지난해 11월 무등산 생태탐방원 개원에 따라 무등산권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

로그램 발굴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오는 4월부터 무등산생태탐방원과 관광객을 연계한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인 '무등산생태탐방원 풍류체험'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생태자원·시가문화권 탐방 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에는 전국 여행사 대표 40명을 대상으로 팜투어(사전답사여행)를 진행해 북구 8경, 무등산 주변 역사·생태자원, 5·18 인권문화, 맛집 등 북구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타 지역 단체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동구, 올해 충장축제 총감독에 차재웅씨 선정

광주시 동구는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 총감독에 차재웅(47)씨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차 총감독은 명랑대첩축제(2008-2017), 부산불꽃축제(2014-2016), 목포이순신수군문화축제(2018), 추억의 충장축제(2018) 등 다수 지역축제에서 감독을 역임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점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축제전반에 대한 책임기획 및 연출 ▲축제발전방향 제시 ▲프로그램 운영총괄 ▲축제장 공간구성 ▲축제 이슈화를 위한 대외홍보방안 마련 등 총

장축제를 총괄하게 된다. 차 총감독은 "충장축제는 대한민국 유일의 뉴트로(new-tro,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시대에 부합하는 도심축제라고 생각한다"며 "추억을 소재로 한 충장축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심거리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추억, 세대공감'을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충장로·금남로·예술의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송정역 후면도로, 신덕지하도~송정초교 도로개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과 신덕지하도~송정초교 간 도로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개설사업은 송정동 신덕마을에서 송정지하차도까지 총 810m를 2차로로 개설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현재 시설계획을 마치고, 철도공단에서 121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착공해 2021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신덕지하차도에서 송정초교까지 1.0km를 4-6차로로 개설한다. 총 사업비는 270억 규모로 주민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70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며,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청사 앞 더 푸르러진 명품숲...소나무 7그루 추가 식재

광주시가 시청사 앞에 소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산책과 휴식을 위한 시설물도 설치키로 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3월 초 청사 정문과 잔디광장 사이에 소나무 7그루를 새로 심었다. (사진) 시청사는 조성 초창기부터 소나무숲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소나무의 적절한 생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형이 좋은 15그루를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의회동 앞 이동로에 옮겨 심었다. 이를 통해 '숲 속의 청사'라는 분위기를 연출, 이미지가 제고된 것은 물론 대표 조경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는 앞으로도 밀식돼 이식이 필요한 소나무를 적극 활용해 명품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민과 방문객들이 산책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보강하고 의자 등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본격 추진 19개마을 공모 선정

광주시가 2019년도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사랑방을 여성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공동육아, 돌봄을 공유하는 등 여성이 주체가 되는 마을 공동체 만드는 프로젝트다. 올해 사업은 3월 말부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씨앗', '특화' 등 2단계로 구분해 운영된다. 분야는 돌봄, 여성역량강화, 성평등마을

등 3개로, 광주시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특화 사업은 ▲마을을 품은 도서관(숲속작은도서관) ▲알배물잡(JOB)시즌 2(동구&동아'S) ▲까망이한울타리프로젝트-III(비아까망이도서관) 등 5개 마을이 선정됐다. 씨앗 사업은 ▲삼암동 젊은맘, 프로젝트-엄마의 독박육아 탈출(브라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는 해피투게더 서창골(서창맘) ▲달피마을 재할

용제작단(원산동지원봉사캠프) ▲풍경재모모가정 프로젝트(첨단2세일풍경재입주자대표회) ▲목련꽃 마을 공유학교(마을한바퀴) 등 14개 마을이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들 마을에 단계별,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광현미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여성가족친화마을 광역형 모델을 특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